# “명령에 복종했을 뿐” 계엄군 면죄부 준 보고서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논란**

## ‘시위대 무장설’ 애매한 기술…왜곡 세력에 ‘여지’ 남겨
## 암매장 기술 54쪽인데 군·경 피해자 514쪽 ‘본말 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계엄군과 5·18을 왜곡하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가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29일 총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3개를 먼저 공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추가로 조사결과보고서 2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각각 ‘군·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에 대한 것으로, 진상조사위 위원들은 두 사건 모두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군·경 피해 보고서는 쪽수로만 514쪽에 달했다. ‘행방불명자’(86쪽), ‘암매장’(54쪽) 등 보고서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민간인 ‘사망’(282쪽)과 ‘상해’(165쪽) 사건 보고서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군·경 피해와 관련, 진상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계엄군의 경우 22명이 숨지고 118명이 상해를 입는 등 총 140명의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 4명·상해 29명 등 총 33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보고서에 ‘대다수 계엄군은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는 결론을 싣는 등 광주시민을 학살한 당사자들에게 섣불리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보고서 내용 중 ‘대다수 하급제대 지휘관이나 부하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도 알 수 없었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대다수는 정당한 명령으로 인식하고 진압작전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 주장이 실린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술 더 떠 ‘계엄군은 가해자, 광주시민은 피해자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해 있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대해 폭력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을 탓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에도 오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표현이 남아있기도 했다.

5월 14~17일 ‘전국계엄 이전 경찰의 시위 저지 및 해산 작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위대가 돌을 던져 66명의 경찰 상해자가 발생했다’며 경찰 사망자가 49명에 달한다는 표를 삽입해 둔 것이 대표적이다.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일부 무기고 피탈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지만원 등 5·18왜곡 세력들이 이용하는 ‘시위대 선제무장설’을 정면 반박하기 보다 그들 주장에 여지를 준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기고 피습 사건 보고서 ‘조사 결과’ 항목에는 ‘나주 남평지서, 영산포지서 등은 경찰 기록, 각각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썼다. 그런데 ‘결론’ 항목에는 ‘나주 남평지서 피탈 시간인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시위대의 총기 피탈 시각이 모두 오후 시간대임이 확인됐다’고 쓰여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남 일원 으로 진출해 무장한 시위대의 선제무장설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보인다’면서도 ‘21일 오전 8시 10분께 계엄군의 실탄 분실 사례에 대한 보안사 등 군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달아 선제무장설의 가능성을 열어 둔 모호한 결론도 내놨다.

한 5·18 관계자는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겠다’는 등 애매한 결론을 내린 채 조사를 마치면, 5·18 왜곡 세력들은 이를 왜곡의 빌미로 삼을 것이 틀림없다”며 “4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허사로 돌리게 된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진상조사위 사무처 스스로 보고서 ‘부인’

## 언론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서
## 전원위원 의결 사안 뒤집어
## 내부 “독단적 보도자료” 반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조사결과보고서를 부인하는 등 난맥을 드러냈다.

조사보고서에 담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제기한 비판을 부정하면서 전원위원들이 의결한 결과조차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해명보도자료를 두고도 진상조사위 내부에서 분란이 일고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일 ‘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보도〈광주일보 3월 4일자 6면〉에 대한 해명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발포책임과 관련 윗선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전두환·노태우는 건강 악화로 가족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사망에 이르러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종헌 3공수 작전참모는 진술 거부를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지적한 ‘윗선 조사 부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에서도 전원위원 3명이 비판했던 문제다. 결국, 진상조사위의 해명은 스스로 전원위원회 소수 의견을 반박한 셈이됐다.

일부 전원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위 명의로 낸 보도자료가 아니라 사무처 명의로 낸 보도자료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웠다.

사무처는 진상조사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조사결과를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원위원들은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지역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노조)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하고 고용안전을 보장하라”며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돌봄 이용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어가지만 돌봄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약속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에 비해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들은 임금가이드라인이 없고, 임금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

대학생 위한 ‘천원 아침밥’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쿱스캣(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 ‘천원아침밥’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 ‘천원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박차
### 도교육청, 2026년 개교

전남교육청이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요셉금릉학원이 운영하는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를 2025년 3월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이 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 2026년 3월 18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계과·전기전자과·보건간호과 등 전문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K-문화교육 등을 강화, 이주배경학생과 해외 유학생의 교육·취업·정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전남국제직업고 신설과 더불어 전남형 모델 개발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학교·지자체·산업체 취업 시스템 구축 등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세계 각국에서 전남으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국제직업고가 2026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구립도서관에 ‘봄 활짝’
### 광주 남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시 남구가 상반기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 남구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립도서관 4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정보도서관(봉선2동)에서는 유아, 초등학생 1~3학년, 성인을 대상으로 ‘놀러와요 영어동화’와 ‘호기심 톡톡 놀이수학’, ‘내일은 탐구왕’, ‘캘리, 꽃을 쓰다’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도서관(봉선동)에서는 초등학생, 성인, 어르신을 위한 4가지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호기심 톡톡 과학놀이’, ‘요리쿵 조리쿵’, ‘아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시니어 힐링 스케치’ 등이다.

푸른길도서관(주월동)은 ‘그림책으로 쿠킹’, ‘찾아라 우리 역사’, ‘책이랑 나랑 놀아요’, ‘오늘은 내가 과학자’, ‘두뇌가 즐거운 소통 보드게임’, ‘캘리그라피로 담는 인문학’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효천어울림도서관(행암동)에서는 ‘엄마랑 꼼지락 책놀이’, ‘동화톡톡 요리쿡쿡’, ‘도서관에서 읽는 영어 동화’, ‘좋은책 좋은글 캘리그라피’, ‘행복소통 자녀와 책읽기’, ‘그림책 독서심리치료’ 등을 개설했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재료비(최소 5000원~최대 5만 5000원)는 개인부담이다.

신청은 광주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